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최근 호남대학교 상촌 캠퍼스 부지 아파트 층수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을 위한 무등산 경관 확보' 등을 위해 '아파트 30층 이상 건축 불허' 입장을 밝혔음에도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34층을 조건부 수용했기 때문이다. 30이라는 숫자의 절대적 결정은 좋은 의도 즉 도시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측면이고, 가급적이면 무등산 경관을 광주 도심 이곳저곳에서 많은 시민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의 표현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도는 경관의 획일화나 다양성 부재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30이라는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서 평균 층수라는 표현도 있을 것이다.

필자에게 몇 년 전 오십견 증상이 왔다. 똑같은 증상인데 3명의 의사마다 보는 견해와 치료법이 달랐다. A의사는 목 디스크로 인한 현상으로 수술을, B의사는 노화로 약물 치료를, C의사는 운동 처방을 내렸다. 이렇듯 같은 증상의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판단이 각기 달랐다. 각자의 경험적 지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였을 것이다.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도시 정책

‘광주다움’ 과연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을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는 만큼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도시다운 철학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즉 경제, 문화, 교육, 산업, 소득 수준 등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장단기 사회적·물리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데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과거의 계획들은 지워지거나 퇴색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 초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좋지만,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면서 초기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도시개발의 방향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심의·조사·자문하는 법적기구로서 재산권에 대한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이후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하다.

위원회의 문제점은 비단 도시계획위원회 뿐 아니라 건축·경관·교통 위원회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는 국토부 등에서 만들어 놓은 심의 기준 등과 별도로 광주시 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는 당연하지만 해당 위원회의 기능

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참여 요구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아는 생각도 해 본다.

최근 광주시에 크고 작은 많은 협의체와 TF팀 등이 꾸려지면서 각종 사업이나 사안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도시 행정에 있어 시민 참여는 당연하고 또한 점차 심화·발전시켜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논의의 장에서는 논점이 확실해야 한다. 행정과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적·법적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까지 폭넓게 논의된다면 행정과 각종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혹시 옥상옥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광주시가 시민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맞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협합성 등은 행정에서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혼란스럽지 않은 도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시는 얼마 전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날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초래된 획일적인 경관, 자동차 중심 거리, 환경 훼손과 오염, 무미건조한 건축물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창조시켜 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광주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 가능한 도시 건축의 기본 원칙이기도 했다. 맞는 말이다. 광주다움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아닐까? 지속 가능한 실천이야말로 광주다움을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백화점은 아무래도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보다 손님 주머니 속에 든 돈을 더 중시한다. 내부도 잘 드러나도록 상품 중심으로 꾸며져 있고, 사람들은 그 상품을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진다.

시장은 물건을 주고받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가 보아도 사람이 중심이다. 백화점이 물건 사이를 헤치고 다니면서 상품을 찾는 곳이라면, 시장은 사람 사이를 누비고 다니면서 상품을 찾는 곳이다. 백화점은 고기는 있으나 푸줏간이 없고, 생선은 있으나 비린내가 없으며, 망치와 호미는 있으나 대장간이 없는 곳이다. 옷과 구두는 넘쳐나나 재단사와 수선공이 없으며 양주·맥주 없는 술이 없을 정도이나 진정 노랫소리가 없는 곳이다. 백화점이 없는 물건이 없는 곳이라면 시장은 없는 사람이 없는, 남녀노소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가공되고 포장된 백화점과 달리 남광주 시장에는 살아 있는 것들이 오고 간다. 언제나 머리 고기가 팔릴 줄고 생닭이 튀겨진다. 검붉은 흙이 묻은 도라지나 쪽파가 손님을 기다리고, 보성·완도에서 올라온 주꾸미와 신선 바다에서 뛰놀던 방어, 오리·닭이 산 채로 거래된다. 팔짱한 것보다 어디 한쪽이 좀 깨끗이 양파나 감자가 더 많이 널브러져 있는 곳이다. 물건에 상표도 가격도

남광주 시장 연가

없지만 서로 입과 입을 통해 사는 이나 파는 이 모두 불만 없이 물건을 주고받는다. 때론 고성도 오가지만 흥정이 끝나면 유독유독하고 단골이 되어 더욱 관계가 단단해지는 곳, 즉발 굵은 냄새와 튀밥 튀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 날이 저물면 한두 명씩 몸을 비틀거리며 떠나고, 어둠 너머로 막걸리 냄새가 풍겨 오며 남행열차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남광주 시장이다.

남녘 고향과 장흥 보성에서 시내로 오는 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목포와 나주, 해남에서 광주역으로 가는 기차가 동서로 이어져 만나는 십자로 바로 옆 남광주 시장. 지금은 사라졌지만 기차가 지나갈 때면 광주와 화순을 잇는 넓은 도로에 차나기가 내려졌고 긴 꼬리를 흔들며 기차가 지나가면 흑어 아는 사람이 타고 있을까 찻간의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했다. 간수가 서둘러 차 단기를 올리면 차들은 건널목을 배배 지나갔다.

그랬다. 그 기차는 남광주역에서 가장 오래 멈춰 서다. 열차가 희묘한 입김을 토해내던 새벽에 올라온 사람들이 남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수산물과 들녘에서 애지중지 가꾼 농산물을 머리에 이고, 지게꾼들은 지게에 실어 내렸다. 남광주 시장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광주의 유일한 기수역(汽水域)이었다. 갯나가는 사내와 흄내 나는 아낙이 만나서 꼬막 안주에 구성치 옥자배기를 부르며 삶의 애환을 노래하던 곳이였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척도 만나고 원수같이 쫓기던 첫사랑도 만나는 곳이다. 뚝배에 친정어머니를 만나면 딸은 꼭 께취든 비상금을 주머니에 몰래 찔러 주고, 어머니는 딸 손을 잡고 국립잡으로 가기 바쁜 곳도 이곳이다.

남광주 시장 열골은 뉘니 뉘니 해도 흥여와 낙지다.

흥여는 코를 찌개하 쑤시며 다가고, 낙지는 혀에 척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사시사철 빠지지 않고 좌판을 차지하고 있는 흥여와 낙지는 길진 남도 사람들을 영락없이 닮았다. 몇 걸음 들어가면 진한 육설과 농담이 있고, 노랫소리와 웃음꽃이 수시로 만발하는 가게들이 지척이다.

남광주 시장은 5·18 때 절전지였다. 공수부대원들이 전대병원 꼭대기에 M607관총을 설치하고 시민들 동향을, 건널목과 시장 사람들을 24시간 감시한 곳이었다. 도청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다는 몰라설 수 없는 보루이자 경계, 낮에는 시민들이 바는 공수부대원들이 점령했던 치열한 현대사의 거점이었다.

또한 이곳은 내 청춘이 있는 곳이다. 아자를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면 밤 11시, 사위는 온통 깜깜했다. 자취를 했던 터라 집에 가면 반길 사람도 없었고, 연탄불은 꺼져 냉방일 더 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때마다 훗날 리는 눈발 속에 시장 입구, 반짝이는 카바이트 불빛이 날 흔들었다. 부나방처럼 두 손을 호호 불고 포장마차로 들어가면 아이를 등에 업은 젊은 아낙이 늦도록 장사를 하고 있었다. 100원에 안주를 곁들여 소주 두 잔, 담배 한 개비를 주었다. 처음으로 혼술한 곳도 담배를 피운 곳도 이곳이다. 난 그렇게 혼자 술을 마시며 내면으로 성숙해졌고, 피비린내 나는 5월을 잊으려고 머리를 쥐어짖으며, 쓰디쓴 담배 연기를 내뿜어서 자꾸 덧나려는 5월의 상처가 아물도록 몸부림을 쳤다. 그렇게 고단한 청춘을 건넌 곳도 남광주 시장 건널목이었다.

남광주 시장도 많이 변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힘센 낙지가 손님을 기다리고 흥여 냄새가 지나가는 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말에는 무등산에 갔다가 남광주에 들러 사람 냄새 좀 맡아야겠다.

기고



김중화
광주시 인사정책관

우리는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 과정에서 젊은 세대를 향해 “요즘 애들은 참 바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러나 몰라” 등 우려와 불만이 담긴 말을 하곤 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종종 들었던 말이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과 이집트 피라미드 내 벽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바릇이 없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렇듯 세대 간 불통의 문화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나타난 현상이지만,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는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성장 배경, 가치관, 경험 등에 차이가 보이면서 세대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현상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64%는 세대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갈등 문제는 공식사회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공직사회 세대 간 소통의 공식

있다.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선후배 공직자 간 이해와 소통의 부재는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조직의 역량, 성과와 직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선배 공직자와 후배 공직자 간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밀레니얼 세대인 후배 공직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세상에서 디지털 원주민으로 성장한 세대다. 선택의 자유와 수평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며 조직보다 개인, 공적 영역보다 사적 영역을 중시한다.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고 변화와 혁신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가졌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후배 공직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째,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후배 공직자는 수평적 의사소통에 익숙하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지시보다는 왜 그런지 설명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공경해야 한다. 후배 공직자는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다.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는 즉시 반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선후배 공직자 간 갈등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업무를 배분하고 평가할 때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업무에 의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고 정확하며 자주

하는 것이 좋다. 후배 공직자는 피드백이나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는 상사를 유능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업무 결과에 대한 격려와 칭찬 등 긍정적 피드백을 자주 해주면 존경하는 관리자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말하기보다는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직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인식적으로 듣는 연습을 해보자. 후배 공직자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좀 더 이해하고 다가가면 진심 어린 교감이 가능할 것이다.

세대 간 소통은 ‘졸탁동시’ 해야 한다. 병아리와 어미 닭이 동시에 알을 쪄듯 선배 공직자의 노력과 함께 후배 공직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후배 공직자는 선배 공직자가 만들어 놓은 가치와 규범 속에서 근무하게 마련이다. 선배 공직자의 좋은 전통은 이어가고 개선할 내용은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공식 문화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후배 공직자도 어김없이 더 젊은 후배 공직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선배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선후배와 차 한잔 나누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를 초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대 간 갈등으로 공직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社說

GGM 시험 생산 돌입 ‘광주의 꿈’ 영글어 간다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공장 건설과 설비 설치 및 시운전까지 완료하고 마침내 오늘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도장 공장과 조립 공장 등에서 잇따라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의 시험 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시험 생산은 대량 생산에 앞서 실제 판매할 차량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차를 만들며 성능과 품질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GGM은 기술직 경력·신입 사원 239명을 선발했으며, 현재 추가로 모집 중인 137명을 합쳐 모두 380여 명의 기술직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체·도장·조립 공장 등 세 개 공장의 설비 설치 작업과 시운전도 모두 완료된 상태다. 특기할 만한 것은 GGM 조립 공장은 다른 회사들이 부품을 조립된 상태인 모듈로 공급받는 것과는 달리 부품별로 받아 자체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거

친다는 점이다. 이는 더 많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이번 시험 생산은 민선 7기인 지난 2014년 7월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7년 만이다. 돌아보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갈등으로 진통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계와 기업이 인건비 절감 및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하고 정부·지자체가 주거·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다.

GGM은 5개월의 시험 생산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어렵사리 ‘광주의 꿈’이 영글어 가고 있는 만큼 노사가 상생 협력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발휘, 조기에 품질 안정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양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판매처 확보 등의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측은 특히 그동안 잇따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정확히 알고 실천을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 지 벌써 석 달가량 됐다.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분리 배출제 대상은 300가구 이상 단지지와 150~299가구 규모 단지지도 영상 카메라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하는 곳이다.

광주에서는 공동주택 789곳이 의무 분리 대상이다. 단독주택과 나머지 소단지 아파트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분리 배출 대상이 된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친환경도시 구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분리 배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

아파트 주민은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은 사

용 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유의할 점은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깨끗하게 떼내야 한다는 점이다. 비닐 라벨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의 순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페트병은 압착된 뒤 뚜껑을 달아 주면 수거에 편리하다. 색깔이 있는 뚜껑도 마찬가지로 영상 카메라가 설치됐거나 공동난방을 하는 곳이다.

한번 쓰고 버리는 투명 페트병 분해 기간은 500년이나 된다. 하지만 재활용할 경우 고품질 폐자원으로 몸값이 높아져 의류나 가방 등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페트병 속을 깨끗이 씻고, 겉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하고 뚜껑 닫고,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배출하는 것. 꼭 잊지 말고 실천하자.

無等鼓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중국 간, 미국·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구촌이 제2의 냉전체제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 예견되기는 했지만 베껴거림의 정도는 예상 밖’이라거나 ‘냉전 초기 미국과 구소련 간 회담과 같은 분위기’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특히 쿠바 등을 상대로 ‘사회주의 국가연대’를 구축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또 얼마 전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자

우려되는 바다.

우리는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 아래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경제나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이른바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 효과’를 누리려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발전 대신 군비 확충에 모든 것을 걸어온 북한의 안보 위협은 거의 줄지 않고 있는 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오히려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이 끝난 뒤 군비를 대폭 축소하고 느긋하게 평화배당금을 즐기던 미국이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발호를 막지 못해 결국 9·11사태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눈앞에 섬근 다가온 제2의 냉전 시대를 맞아 우리 한국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달콤한 평화배당금에 연연해 갈수록 커지는 군사 안보 위협에 집근 눈을 감고 있지나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다.

/홍철기 정치부 장redplane@

평화배당금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